

"불심(佛心)에 의지해 우리사회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서원한 경찰청 불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11월 3일 경찰청 남관에 위치한 불교회 법당 '수심원'에 모인 회원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佛心 의지처 삼아 우리사회 호법신장 발원"

창립 30주년 맞은 경찰청 불교회

1989년 창립한 연꽃모임 모태
1992년 법당 개원으로 공식화
불교계 원력에 불상 탱화 봉안
2009년 지하서 2층으로 이운

2006년부터 매월 봉축 주간엔
경찰청서 총무원장 초청 법회
경승 스님들 릴레이 법문으로
불자직원들 신심 고취·활력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주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해 봉축대법회를 봉행하는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있다. 직업별, 직군별 수많은 불자회 중에서도 흔치 않는 일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이곳에서 활동하는 직원불자모임 '경찰청 불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불심(佛心)에 의지해 우리사회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서원한 불자들의 모임, 경찰청 불교회가 올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11월 3일 경찰청 남관에 위치한 불교회 법당 '수심원(修心院)'을 찾았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남관 2층 법당 '수심원'에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경찰청 불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는 정기법회는 직장 업무 중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법문을 듣는 법석이다. 점심시간을 할애해 모이는 만큼, 참여하는 회원들의 신심도 남다르다는 평가다.

매주 열리는 법회지만 이날은 좀더 특별하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경찰청 불교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한 후, 처음으로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법석이기 때문이다.

뿌듯한 마음으로 밝은 웃음이 오가야 하지만, 정작 회원들은 마음 한켠 무거움을 떨칠 수 없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물결이 경찰청 내에도 묵직하게 스며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참담한 사고를 마주한 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지도법사로 나선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이 회원들의 심경을 들여다본 듯 법문에 앞서 짧게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메시지를 전했고, 회원들은 합장으로 부처님전에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1989년 치안본부 연꽃모임으로 첫 발을 디뎠다. 당시 이재열 총경을 회장으로, 회원 208명이 모여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법회를 했다. 창립 전부터 마음을 내어 직장 내 신행동호회 형태의 모임을 한 십수명 선배회원들이 구심점이 됐다. 법당 공간은 있었지만 부처님 사진 한 장이 다였던 시절이다. 당시 총무소임을 봤던 홍명희 씨는 "역시 사람이 모이니 신심도 더 깊어지고 많은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산악회와 서예, 합창단 등 소모임까지 이어졌다. 특히 산악회는 전국의 명산을 돌며 그 속에 깃든 사찰을 참배하는 등 성지순례의 형태로도 활성화됐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1992년에는 남관 지하에 부처님을 모시고 공식적인 법당이 문을 열었다. 화담 스님이 불상을, 대우 스님이 불단을, 흥선 스님이 후불탱화 점안을 위해 마음을 내는 등 불교계 원력으로 여법한 법당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오신날 대법회를 봉행한 것이 2006년부터다. 2008년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열리지 못하는 등 곡절도 겪었지만, 2009년 다시 재개되면서 경찰청 불교회가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2009년에는 남관 2층 현재의 공간으로 법당을 이전했다.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경승 스님들이 새롭게 거듭난 법당을 위해 원력을 보탰고, 2010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원법회'를 여는 등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이후 매년 봉축대법회는 대사회적 의미를 담은 뜻깊은 법석으로 거듭났다. 2013년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봉행됐고, 2014년에는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법회로 열리기도 했다. 이후 지속됐던 봉축대법회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하고 점등식으로 개최됐다.

코로나 기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회원들이 참여가 저조해 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은실 총무는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문화가 워낙 확대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저조해 30주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적 변화로 과거에 비해 활동이 일견 위축돼 보이더라도 불교회를 지탱하는 신념은 그대로다. 직장생활 속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는 그 시간이 일상에 활력을 주고 또다시 국민과 우리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 길민성 부회장은 "경찰들은 전입전출 시에도 전국 경찰청에 불교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매주 한번 법당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시간은 업무는 물론, 살아가는데 큰 위안과 활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준영 불교회장도 "범죄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가 필수"라며 "코로나로 중단됐던 법회가 2년만에 재개된 덕분에 경찰청 불자들이 매주 수심원에서 경승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닦아 나가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가장 어둡고 힘든 곳을 향해 정법을 비추는 경찰청. 불심(佛心)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청 불교회가 이 시대를 맑히는 호법신장이 되길 발원해 본다.



1989년 불교회 모태가 된 연꽃모임 창립법회.



2002년 수심원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들.


11월 3일 법회활동중인 회원들. 사진=박재완 기자


10월 27일 조계사서 열린 30주년 기념법회.

2022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PAL GWAN HOE Millennium Buddhist Culture Festival
신라때부터 이어 온 천년의 불교문화 축제

2022
팔관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전 세계인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UN기념공원을 향해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를 위한 추모 묵념을 1분간 진행하는 행사.

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 행사를 맞아 '턴 투워드 부산' 행사에 부산지역 전 사찰이 동참하여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번뇌를 벗게 하고 모든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범종을 울림으로써 순국선열의 왕생극락 발원.

일 시 2022년 11월 11일 오전11시
장 소 부산지역 전 사찰
동참방법 해당 시간에 범종 등을 1분 동안 11타 하고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등 추모행사 진행
휴대전화 등으로 행사장면 녹화 후 부산불교연합회로 영상 전달
영상전달 방법 이메일 : story12311@nate.com (제목에 지역, 사찰명 표기)
문 의 : ☎ 051-867-0501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 YouTube
BBATV 바로가기 QR코드

주최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2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www.palgwanhoe.or.kr